

Venture in, 벤처스

→ Enjoy Venture ©© 이수유비케어 밴드 '허니브레드'

'꿀빵'..음악..한번..들어..보실래요

락 음악은 자유와 반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코드다. 하지만 여기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푹푹 문쳐 사람들에게 락음악으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밴드가 있다. 통합 의료시스템 업체 이수유비케어의 직장인밴드 '허니브레드' 가 바로 그들이다.

2002년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으로 'K-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밴드를 결성한 이들은 허니브레드란 새 밴드명을 짓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멤버들이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먹게 된 '그레이트 허니브레드'란 음식에서 영감을 얻어 지었다는 이 이름 덕분에 이들은 회사 내에서는 '꿀빵'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런 애칭만큼 이들의 입지는 대단하다. 회사 중무식이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의 축하 공연에 이들이 빠지는 적이 없다.

"첫 공연을 했던 때가 회사 중무식이었어요. 악기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여서 무척 힘든 공연이었죠. 드럼도 없이 공연을 하는데 중간에 앰프와 마이크까지 꺼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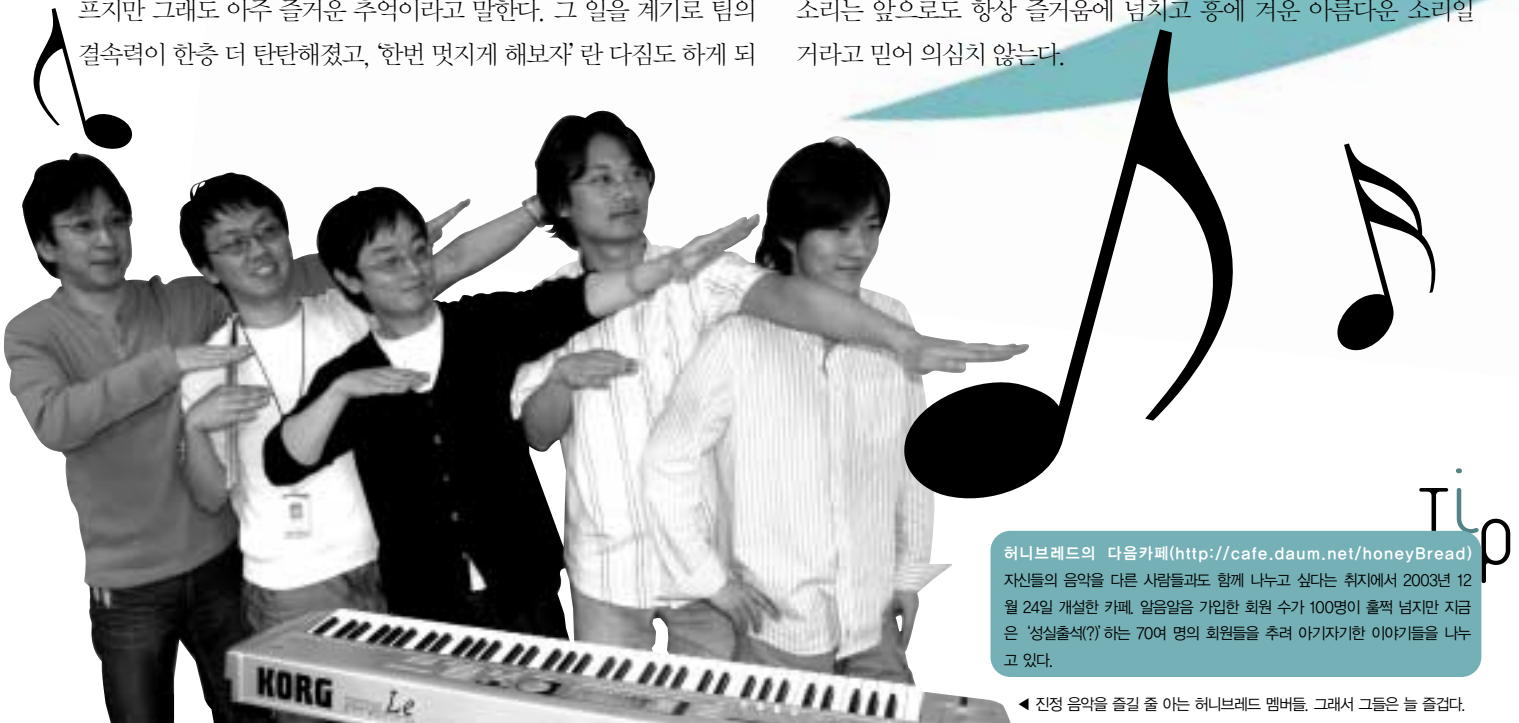
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승한 대리는 그 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아주 즐거운 추억이라고 말한다. 그 일을 계기로 팀의 결속력이 한층 더 탄탄해졌고, '한번 멋지게 해보자'란 다짐도 하게 되

었다. 그 이후 이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하여 작년 연말에는 홍대 클럽을 빌려 처음으로 단독정기공연까지 했다. 대중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직장인밴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는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매주 수요일 업무가 끝나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회사근처에 있는 연습실에 모여 호흡을 맞춘다. 각 멤버가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서 일정상 가끔 연습을 못하게 되는 날이면 일주일 동안 서로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다고.

"직장에서 밴드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학창시절, 어려운 여건 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꿈들을 이제 성인이 되어 다시 이어간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순수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음악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드림을 맡고 있는 채화성 주임의 말처럼 이들은 직장 밴드인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공연을 갖는 것과 허니브레드만의 음악을 직접 만들어 연주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는 이들의 가장 큰 꿈은 자신들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는 앞으로도 항상 즐거움에 넘치고 흥에 겨운 아름다운 소리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Tip
허니브레드의 다음카페(<http://cafe.daum.net/honeyBread>) 자신들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 2003년 12월 24일 개설한 카페. 알음알음 가입한 회원 수가 100명이 훌쩍 넘지만 지금은 '성실출석(?)' 하는 70여 명의 회원들을 주려 아끼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다.

◀ 진정 음악을 즐길 줄 아는 허니브레드 멤버들. 그래서 그들은 늘 즐겁다.

★ 유익하고, 즐거운 우리 팀과 동호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통화 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
★ 담당자 : 김지원(ozmail@empal.com, 02-515-3681)★

일

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냥 잊혀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 나중에라도 펼쳐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서·서식포털서비스업체인 인비닷컴에서 컨텐츠 기획과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태우 사원은 이러한 이유로 2004년 2월 부터 그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daebakman99.do>)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는 흔히 인터넷 일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는 쓰기에 따라 메모장이나 스케치북, 스크랩북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수필집이나 자서전, 사진첩이나 신문이 될 수도 있어요.”

블로그에 대한 신념이 남 다른 만큼 그의 블로그 구성도 아기자자하고 체계적이다. 크게 ‘웃음의 발견’, ‘각종문서 및 작성방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 ‘문서·서식 관련 Q&A’ 등 3개의 카테고리를 명확히 해 두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카테고리는 바로 웃음의 발견. 감동적인 글, 엽기적인 사진, 대박이의 실생활 사진들, 음악, 뉴스, 게임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준다.

그런데 ‘대박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띈다. 진태우 사원의 닉네임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그가 1999년 군복무를 하던 시절, 전우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면 그 아이템들이 얼마 뒤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났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의 별명은 ‘대박이’가 되었다.

그는 퍼온 사진 하나하나에도 그만의 느낌을 글로 표현해 놓는다. 남들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진을 대박이만의 것으로 재가공해 놓은 것이다. 26살, 많지 않은 나이지만 그의 깊은 속을 짐작케 한다. 그의 깊은 속은 방문자들을 위한 배려에도 묻어난다. 그의 블로그에는 선물로 걸린 이벤트가 있다. 그는 999번째, 9999번째, 49999번째 등 특별한 방문 숫자에 이벤트를 설정해 당첨자에게 다이아몬드, 플라워캔, 핸드폰거치대 등을

그의 마음이 담긴 편지와 함께 선물로 주고 있는 것.

“저는 항상 웃고 있어요. 엽기적인 장난도 많이 치고요. 예를 들면 요구르트 30병 마시기 내기, 헬륨가스 마시고 친구 생일송 불러주기 등이죠. 제가 블로그에 엽기적인 사진을 많이 올리고 이벤트도 걸고 하는 건 이런 제 웃음을 남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온갖 관심사나 취미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솔직하게 자신을 블로그에 담아가다 보면 생각이나 취향이 비슷한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 더 블로그에 애정이 간다고 한다. 앞으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의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길 기대해 본다.



Venture in, 벤처인

→ Funny Venture ©© 인비닷컴 진태우 사원의 블로그

행복을.. 나눠주는.. 대박이의.. 블로그로
놀러오세요